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18: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참여 인원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박*영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홍*윤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김*희 (서명)	
도서	도서명	EBS 다크프레임 자본주의			저자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사	가나출판사	출판연도	2013.09.27	번역자	X
오늘의 북클럽 주제	'건전한 소비'란 무엇이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활동 내용 & 방법						
<p>우리 프롤레타리아팀이 선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p> <p>“자본주의 시대에 사회로 나설 우리는 어떤 일과 삶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가.”</p> <p>우리는 선정한 주제, 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자본주의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사회로 나설 세대로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소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며 각자 진도에 맞게 책을 읽고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만들어 온 뒤 선정하여 세 사람이 돌아가며 토의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록하는 방식을 유지했다.</p> <p>그 뒤 각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정리한 뒤 세 사람의 관점을 종합해 짧은 결론 문장을 도출했다. 단순한 감상 수준을 넘어 서로의 관점을 비교, 대조하며 기록을 남기고자 했다.</p> <p>우리가 함께 읽은 책은 총 세 권이었다. 첫째, EBS 다크프라임을 바탕으로 엮은 『자본주의』를 통해 소비, 빚, 마케팅과 같은 생활 세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이재유 저자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통해 자본과 노동, 잉여가치, 상품 세계,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해 토의했다. 셋째, 역시 이재유 저자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고전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동시에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p>						

1주차(10/13~10/19) : <EBS 다큐프레임 자본주의> 제 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 Q1. 건전한 소비'란 무엇이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윤: 소비는 무의식의 영역 물건이 아닌 경험으로 채워야 한다.

건전한 소비의 시작은 '나의 소비가 95% 이상 무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이성적으로 물건을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저지르고 이성으로 합리화할 뿐이다. 특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에 물건을 통해 이상적인 자아를 연출하려는 시도는 결국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 더 큰 결핍을 낳는 악순환이 된다. 폴 새뮤얼슨의 말처럼 행복은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 이제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삶의 경험에 투자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마케팅이 심어준 가짜 욕망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는 길이다.

\*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지능은 곧 생존 능력이다.

낭만적인 이야기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건전한 소비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 특히 '뇌의 고통 중추'를 마비시켜 돈을 쓰는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신용카드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수입의 30%도 저축하지 못하는 과소비 상태임에도 '이걸 사면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카드를 긁는 것은 금융 문맹이나 다름없다. 사회가 할 일은 단순하다.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의 룰을 가르치는 것. 부모와 돈에 대해 투명하게 대화하고 정기적인 용돈 관리를 통해 '돈 관리 근육'을 키워주는 실질적인 금융 교육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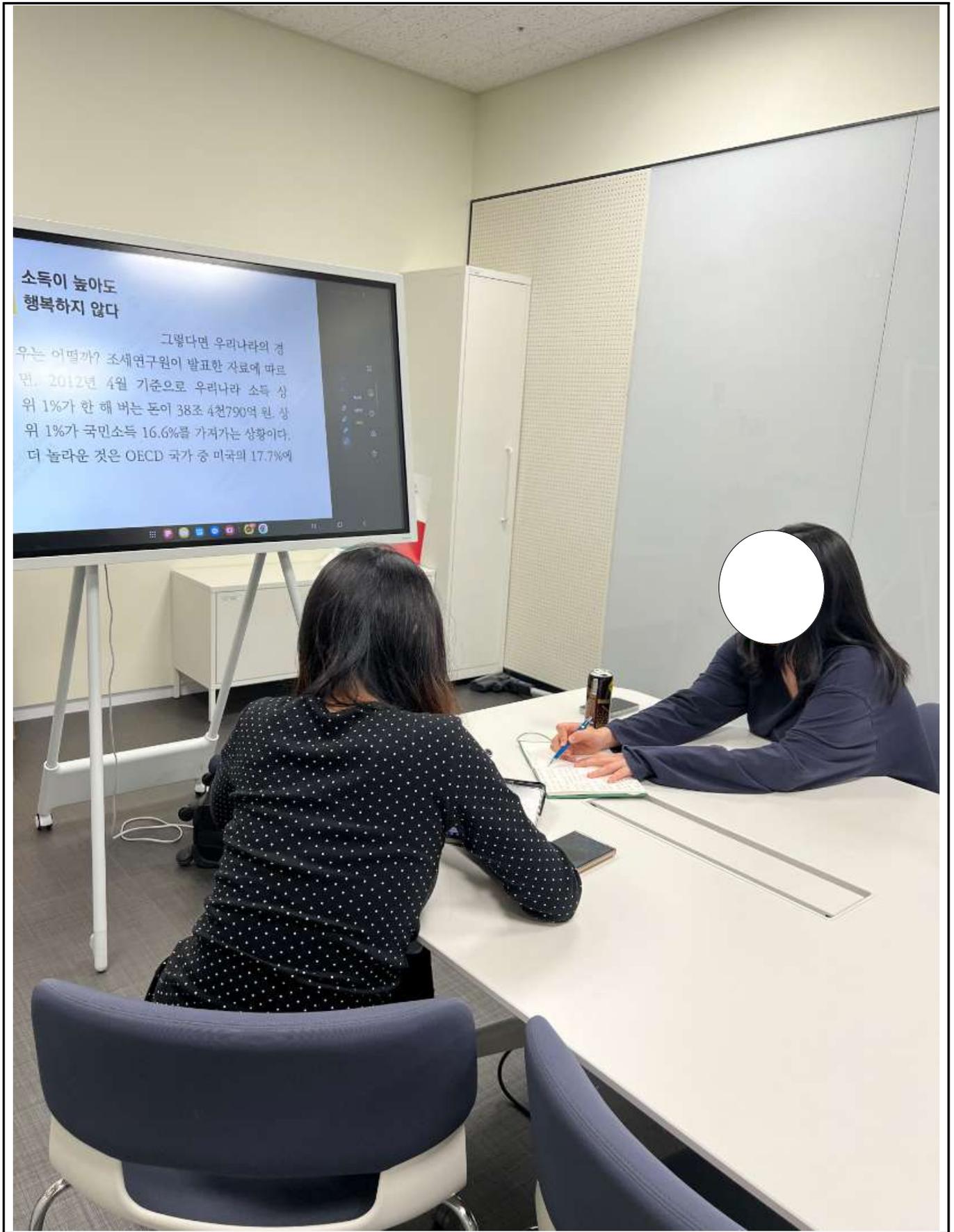
\*영: 개인의 절제력 문제가 아닌 불안을 조장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는 개인이 노력하면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회 구조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남들은 다 하는데'라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교육 시장이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유행을 쫓는 소비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건전한 소비를 장려하려면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는 사회 안전망 즉 복지 자본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가 튼튼하면 사람들은 과시적 소비 대신 창의적인 모험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돈을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주체적인 권리 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 활동 결과

진정한 건전한 소비란 개인의 단단한 자존감과 냉철한 금융 지능이 결합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우리는 물건이 아닌 경험과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소비 중독'이 아닌 '삶의 풍요'를 선택해야 한다.

### 활동 자료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18: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참여 인원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박*영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홍*윤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김*희 (서명)	
도서	도서명	EBS 다큐프레임 자본주의			저자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사	가나출판사	출판연도	2013.09.27	번역자	X
오늘의 북클럽 주제	'돈 = 빛'인 시스템에서 우리는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활동 내용 & 방법						
<p>2주차(10/20~10/26) : &lt;EBS 다큐프레임 자본주의&gt;</p> <p>제 2장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제 3장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p> <p><b>Q2. '돈 = 빛'인 시스템에서 우리는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b></p> <p>*윤: 빛을 권하는 사회 속의 심리적 압박을 벗어나 단단한 내면이 필요하다.</p> <p>현대 사회가 '소비는 미덕'이라며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사실 빛으로 쌓아 올린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일지도 모른다. 돈이 곧 빛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이자를 갚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소비한다. 하지만 이런 외부 지향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함을 부른다. 빛을 통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자본주의가 만든 환상이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남들 보기에 멋진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소비가 아닌 내면의 평온함으로 불안을 잠재우는 태도가 필요하다.</p> <p>*희: 누군가는 파산해야 하는 '빛 보존 법칙' 모르면 당한다.</p> <p>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이용해 없는 돈을 불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냉혹한 '이자 뺏기 게임'과 같다. 누군가 빛을 갚으면 시중의 돈이 사라져 또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빛 보존 법칙' 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쏟아지는 대</p>						

출 문자와 소비 유혹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임을 인지하고 철저한 금융 지능으로 무장해 내 자산을 지켜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 빚을 지는 순간 우리는 자본가들이 짜놓은 판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영: 빚을 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집값 폭등과 불안한 고용 환경은 청년들에게 '빚'을 강요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도로 돈을 움켜쥐거나 반대로 포기하고 울로에 빠진다. 사회가 복지라는 보함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 개인이 빚을 저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돈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가치관을 교육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국영수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잔인한 빚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금융 교육이다.

#### 활동 결과

자본주의의 본질은 '빚'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냉혹한 제로섬 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해 철저한 금융 이해력을 갖추되 시스템이 강요하는 무한 경쟁과 과시욕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현명한 생존자'가 되어야 한다.

#### 활동 자료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0월 31일(금) 18: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참여 인원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박*영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홍*윤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김*희 (서명)	
도서	도서명	EBS 다큐프레임 자본주의			저자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사	가나출판사	출판연도	2013.09.27	번역자	X
오늘의 북클럽 주제	마케팅이 뇌를 조종한다는데 어떻게 방어해야할까?					
활동 내용 & 방법						
<p>3주차(10/27~11/2) : &lt;EBS 다큐프레임 자본주의&gt;  제 4장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제 5장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p> <p><b>Q3. 마케팅이 뇌를 조종한다는데 어떻게 방어해야할까?</b></p> <p>*윤: 자존감이라는 방패 없이는 무의식적 소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다.</p> <p>마케터들은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 우리의 무의를 조종하고 브랜드는 뇌의 편도체에 자리 잡아 감정을 흔든다. 가장 무서운 점은 부모의 소비 습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결핍을 채우려 한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나는 물건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서적 교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경험을 축적해야만 무의식을 파고드는 마케팅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p> <p>*희: 막연한 희망 고문 대신 가정 내 '돈 교육'이 최고의 방어다.</p> <p>'소비의 대물림'은 엄밀히 말해 '금융 무지의 대물림'이다. 부모가 돈 이야기를 터부시하거나 자녀에게 "나중에 다 해줄게"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이를 금융 문맹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마케팅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소비자가 명확한 금융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돈을 다루는 법을 투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예산을 짜보고 욕망을 조절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p>						

\*영: 고도화된 마케팅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CCTV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키즈 유튜버를 통해 아이들을 '미래의 고객'으로 세뇌시키는 현대 마케팅은 이미 개인의 방어 능력을 넘어섰다. 이를 개인의 자제력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가혹하다. 금융 상품도 식품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품이다. 따라서 불량 식품을 처벌하듯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무의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이것은 안전한가?"라고 묻는 것이 유난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활동 결과

소비의 대물림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정'과 '제도'다. 가정에서는 막연한 희망 대신 구체적인 금융 현실을 교육하여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길러주고 사회적으로는 무분별한 무의식 마케팅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 활동 자료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04일(화) 18: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참여 인원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박*영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홍*윤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김*희 (서명)	
도서	도서명	마르크스의 자본론			저자	이재유
	출판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연도	2022.06.30	번역자	X
오늘의 북클럽 주제		<p>1. 곧 사회로 나갈 우리는 단순히 “월급 많이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좇아도 되는가 아니면 노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야 하는가.</p> <p>2. AI와 자동화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기술에 밀리지 않는 직업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인가 아니면 일과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가.</p>				
활동 내용 & 방법						
<p>4주차(11/3~11/9) : &lt;마르크스의 자본론&gt;  제 1장 실천적 유물론자 카를 마르크스  제 2장 『자본론』 읽기</p> <p><b>Q1. 곧 사회로 나갈 우리는 단순히 “월급 많이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좇아도 되는가 아니면 노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야 하는가.</b></p> <p>*윤: 자본론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노동력도 예외 없는 상품이다”라는 대목이었다. 나는 그동안 당연히 취업해서 월급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르크스 말대로라면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한 덩어리 상품으로 내놓는 셈이 된다. 내가 만든 가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 채 월급이라는 형태로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만 보고 직업을 고르면 나도 모르게 “교환가치만 높게 쓰이고 금방 버려지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앞으로 일을 고를 때 최소한 내가 배우는 것 나에게 남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처럼 사용가치도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희: 마르크스가 말한 상품 세계의 핵심은 “모든 것이 가격으로 환산되는 순간 관계의 실체가 가려진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회사와 맺는 계약은 겉으로 보면 임금과 노동시간이 적힌 계약서일 뿐이다. 그러나 자본론 1부를 보면 그 이면에는 “필요노동시간 이후의 잉여노동시간”이 숨어 있다. 노동자는 하루 8시간을 팔지만 실제로는 그중 일부만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전환된다. 이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그저 “연봉 적당한 곳에 잘 들어간 사람”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사회로 나갈 때 임금 수준뿐 아니라 해당 노동이 어떤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나중에 나 스스로 일정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까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나도 노동력만 파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지식 네트워크 같은 나만의 자본을 조금씩 축적해야 한다고 느꼈다.</p>						

\*영: 두 사람 모두 개인의 전략을 잘 말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론 1부가 던지는 불편한 질문은 “노동자가 아무리 똑똑하게 움직여도 구조가 그대로라면 인간 소외가 계속되지 않느냐”는 점이라고 느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상품의 물신성은 우리가 서로의 노동을 매개로 만나는 대신 물건과 돈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게 만든다. 그 안에서는 노동자가 자기를 위해 일한다기보다 “시장에 맞는 노동력”을 찍어 내는 존재로 취급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할 때 개인 커리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본다. 최소한 내가 들어가는 업종이나 조직이 사람을 완전히 소모품으로만 쓰지 않는지 노동조건을 바꾸려는 집단적 시도가 가능한지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뜯어고친다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만 노동조합이나 동료들과의 연대처럼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인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Q2. 마르크스는 자본이 잉여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기계화 구조조정 등을 반복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AI와 자동화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기술에 밀리지 않는 직업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일과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가.**

\*윤: 가장 먼저 떠오른 점은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였다. 노동자가 파는 것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속도와 방식에 맞추어 소비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기계제 대공업에서 노동자가 기계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했듯이 AI 시대의 노동도 시스템의 리듬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다. 그래서 단순히 AI가 대체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혹은 나를 점점 더 규격화된 행동으로 몰아넣는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느꼈다.

\*희: 마르크스가 말한 잉여가치의 확대 방식은 AI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절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이었고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을 높여 필요노동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화와 AI는 후자의 극단적인 형태인 만큼 노동자는 점점 더 빠르고 정교한 성과를 요구받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로 나갈 때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이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내가 투입하는 노동이 어떤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잉여가치가 온전히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구조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 이야기를 들으며 구조 자체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은 노동력이 소비되는 과정뿐 아니라 노동력이 생산되는 과정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동자의 생활 자체가 자본의 재생산 조건이 되어 버리는 구조라면 개인의 현명한 선택만으로는 소외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기계화와 자동화가 심화될수록 필요노동은 줄어들고 잉여노동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압박이 등장한다. 이런 구조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기준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그 노동이 집단적인 변화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활동 결과

1. 자본주의에서 “좋은 일자리”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노동력이 어떤 방식으로 상품화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소외되는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곧 사회로 나갈 우리는 연봉만 높이려 하기보다 사용가치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노동을 선택하고 동시에 노동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시도에 어떻게 참여할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2. AI 시대의 노동 선택 기준은 단순히 기술에 대체되지 않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차원을 넘어선다. 노동력이 어떻게 소비되고 재생산되는지 이해한 뒤 사용가치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선택해야 하며 동시에 노동조건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시도에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 수동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일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18: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참여 인원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박*영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홍*윤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김*희 (서명)	
도서	도서명	마르크스의 자본론			저자	이재유
	출판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연도	2022.06.30	번역자	X
오늘의 북클럽 주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는 우리의 의식과 욕망이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업 선택 역시 나의 자유로운 결정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의 결과인가. 사회로 나가는 우리는 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5주차(11/10~11/16) :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 3장 철학의 이정표

**Q3.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는 우리의 의식과 욕망이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업 선택 역시 나의 자유로운 결정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의 결과인가. 사회로 나가는 우리는 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윤: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선택들이 정말 내 선택이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의식이 생활 조건에서 나온다면 내가 추구했던 안정적인 직업 높은 연봉 브랜드 있는 회사 같은 기준도 사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이어바흐가 종교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설명했듯이 오늘날에는 직업과 성공의 기준이 그런 신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취업을 목표로 하기보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하려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희: 의식이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직업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제공하는 욕망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시장의 법칙을 자연적인 질서처럼 설명했지만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연법칙성이 사실 특정한 사회관계가 만들어 낸 관념이라고 비판했다. 내가 좋은 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결국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춰진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려는 직업이 정말 내 삶의 방향과 맞는지 아니면 이미 형성된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선택인지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거리라고 생각한다.

\*영: 두 사람의 의견에서 개인의 선택 이전에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느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의식을 자기가 만든 것으로 착각하는 태도였다. 실제로는 사회적 분업과 생산 방식이 인간의 욕망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욕망이 다시 개인의 선택처럼 느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자기 삶의 조건을 스스로 바꾸고 확장시키려는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직업 선택도 이런 실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나의 선택이 구조에 끌려가는 선택인지 아니면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

활동 결과

마르크스가 말한 의식의 조건성은 직업 선택이 결코 순수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로 나가는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욕망과 기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의 출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취업 준비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정의 과정이며 구조 속에서 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곧 자유로운 선택의 출발점이 된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18: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참여 인원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박*영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홍*윤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김*희 (서명)	
도서	도서명	스미스의 국부론			저자	이재유
	출판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연도	2022.06.30	번역자	X
오늘의 북클럽 주제		<p>1.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혹은 도덕적 조건은 무엇일까?</p> <p>2. 현대 사회에서 AI와 자동화 기술은 인간 노동을 극도로 단순화하거나 대체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스미스가 우려한 '노동자의 정신적 불구 현상'과 연관성이 있다. AI 자동화 기술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특정 계층의 노동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국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떤 공공 제도를 제공해야 할까?</p>				
활동 내용 & 방법						
<p>6주차(11/17~11/23) : &lt;스미스의 국부론&gt;</p> <p>제 1장 근대 경제학의 어머니 애덤 스미스 제 2장 『국부론』 읽기</p> <p><b>Q1. 스미스는 '공감'을 보이지 않는 손이자 공평한 관찰자로 통일되는 공통적인 것으로 본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며 자본을 운영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단순한 시장 원리가 아닌 '공감'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공유한다면 스미스의 경제 체제는 어떤 윤리적 전제를 필요로 할까? 즉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혹은 도덕적 조건은 무엇일까?</b></p> <p>*희: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p> <p>스미스에게 있어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가장 유리한 곳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회 전체의 연간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된다. 이는 그가 공공의 이익을 의도하지 않았을 때도 발생한다. 결국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공익으로 이어지려면 이들이 자본을 운용할 때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p>						

규제나 제도가 노동과 자본의 순환을 방해한다면 이는 곧 개인의 가장 신성한 재산인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침해가 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전제는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이다. 스미스 경제 체제가 작동하는 최소 조건은 국가가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인위적인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 \*희님의 '자유'에 대한 강조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자유는 곧 '정의'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정의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만 긍정적인 결과에 이른다. 스미스는 군주의 세 가지 의무 중 두 번째로 사회 구성원들을 타인의 부정이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즉 정의의 정확한 집행을 확립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개인이 자본을 운용할 때 자신의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한 사회적 전제는 강력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며 이는 부를 가진 특정 계층이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다. 정의가 무너지면 시장의 자유는 약자의 희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 이 논의는 시장 같은 외부보다는 개인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는 '침착하고 냉정한 원리'이다. 자기애가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면 그 동력이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한 도덕적 조건은 근면함과 검소하고 절약하는 태도다. 검약한 사람은 연간 수입의 일부를 자본으로 축적하여 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 영구적인 기금을 설립하는 것과 같아서 공공의 은인이 된다. '공평한 관찰자' 역할은 외부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스미스는 사유재산과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 개인의 '검약하고 근면한 행동'이 정부의 낭비와 개인의 경솔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힘을 가진다고 이가 국가를 부와 번영으로 이끈다고 믿었다.

**Q2.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 생산성을 극대화하지만 노동자가 '하루 종일 한두 가지 매우 단순한 작업'에만 몰두하게 되어 이해력이 무뎌지고 기민함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대 사회에서 AI와 자동화 기술은 인간 노동을 극도로 단순화하거나 대체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스미스가 우려한 '노동자의 정신적 불구 현상'과 연관성이 있다. AI 자동화 기술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특정 계층의 노동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국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떤 공공제도를 제공해야 할까?**

\*희: AI와 자동화 기술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생산성 향상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본다.

스미스 시대에 공장의 노동자가 단순 작업에 갇혔다면 현대에는 그 단순 작업 자체가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I가 기존의 단순 반복 노동을 소멸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제는 자본의 흐름이다. 기술 변화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잠재적인 능력이 '생산적 자본'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AI가 기존 노동을 단순하게 만들다가 소멸시킨다면 국가는 이들이 새로운

기술 즉 새로운 형태의 '고정 자본'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소비만 하는 계층으로 남게 된다면 국가의 순수익을 저하시키는 비생산적인 비용으로 자리하게 된다.

\*영: \*희님의 의견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스미스의 경고가 사회 질서에 대한 우려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스미스가 걱정한 것은 단순히 노동자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타락은 극단적일 경우 개인 생활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든다. AI 시대 속 '정신적 불구'는 단순히 공장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계층'에도 영향을 준다.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스미스는 교육을 통해 대중이 망상에 덜 빠지게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분별 있는 판단력을 갖게 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교육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윤: \*영님의 의견에 공감한다.

스미스의 우려는 인간 본성의 훼손에 대한 도덕적 절규였다고 본다. 스미스에게 '인간답다'는 것은 이해력 기민함 판단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AI가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만약 인간이 단순한 소비자나 수혜자로만 남게 된다면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얻었던 자아 성장의 기회와 사회적 존중감을 잃게 될 수 있다. 결국 AI는 '정신적 불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심화시킨다. 기존 분업은 인간을 단순한 기계 부품으로 만들었다면 AI는 기계의 작동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만들어 버린다. 국가는 국민들이 사회적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 등으로 국민의 '인간다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활동 결과

1. 스미스가 제안한 해결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교육 및 지식 제공 의무였다. AI 시대는 스미스의 시대처럼 노동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시기이지만 그 대가로 국민 대다의 정신적 자질을 잃을 위험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국가는 경쟁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정신적으로 마비되는 계층을 위해 공공의 교육이라는 윤리적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2. 스미스가 제안한 해결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교육 및 지식 제공 의무였다. AI 시대는 스미스의 시대처럼 노동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시기이지만 그 대가로 국민 대다의 정신적 자질을 잃을 위험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국가는 경쟁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정신적으로 마비되는 계층을 위해 공공의 교육이라는 윤리적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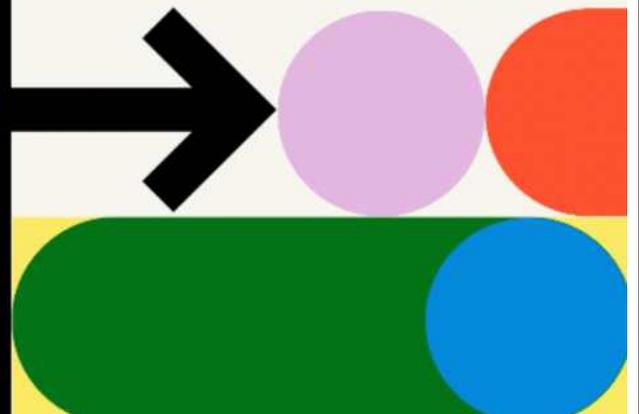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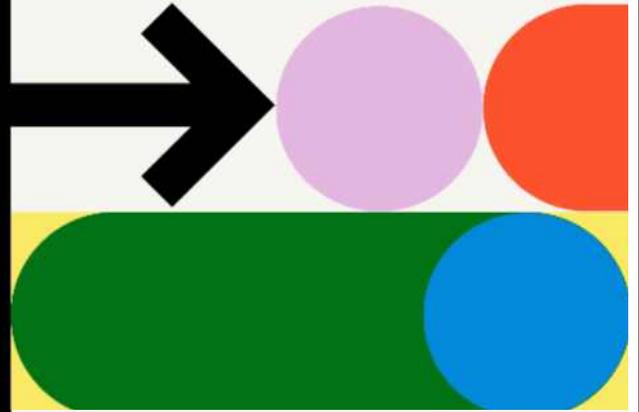
#### 활동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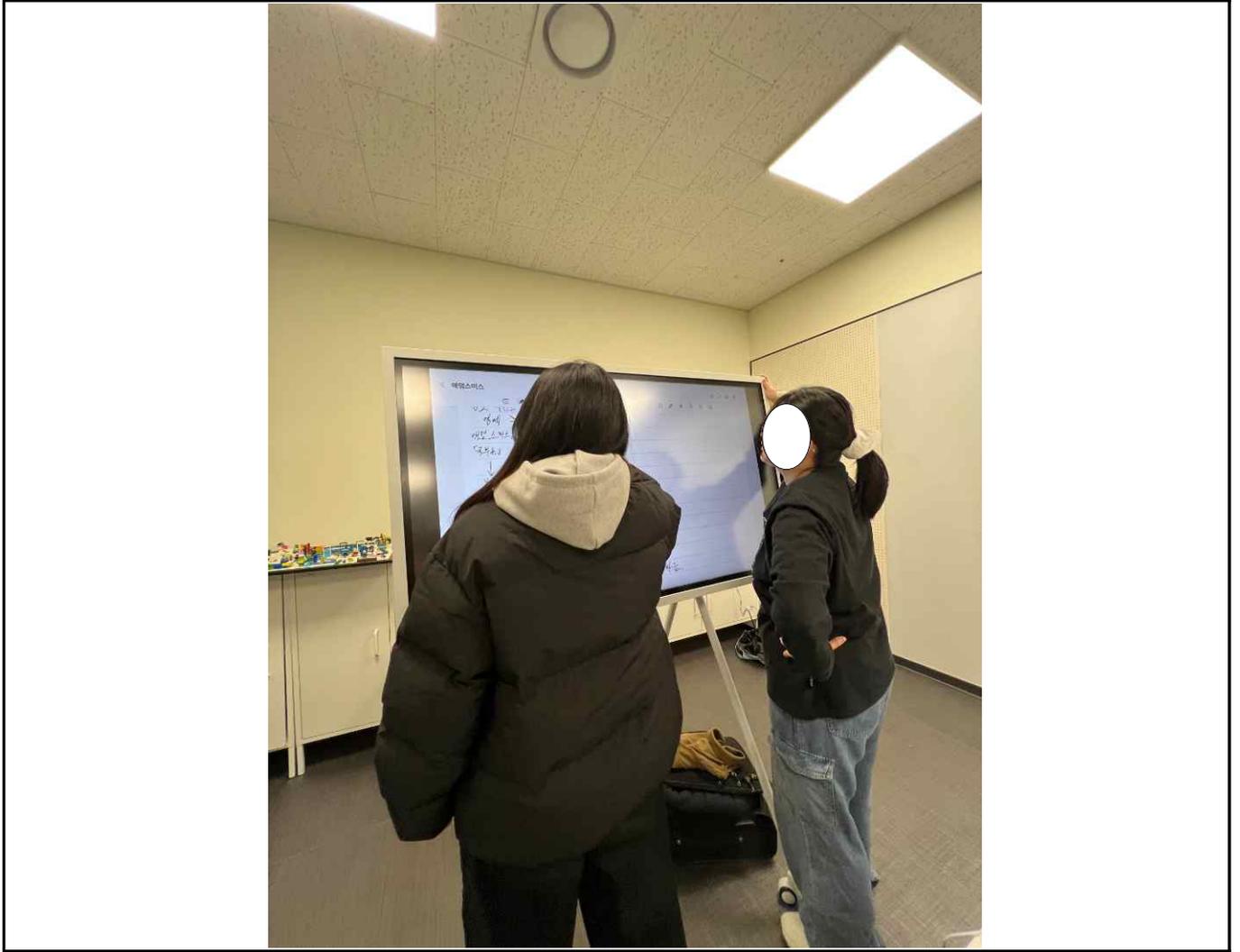
# 애덤 스미스 체제의 윤리적 전제 조건

2025-2  
심비우스북클럽

# AI와 분업의 역설 (노동자의 정신적 불구와 제도적 대응)

2025-2  
심비우스북클럽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18:00~21:00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참여 인원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박*영
	학과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번	2023****	이름	홍*윤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김*희 (서명)	
도서	도서명	스미스의 국부론			저자	이재유
	출판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연도	2022.06.30	번역자	X
오늘의 북클럽 주제		현대의 국가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는 스미스가 주장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거나 충돌해야 할까?				
활동 내용 & 방법						
<p>7주차(11/24~11/28) : &lt;스미스의 국부론&gt; 제 3장 철학의 이정표 + 토론 결과 정리</p> <p><b>Q3. 애덤 스미스는 지역적인 혜택이 있는 공공 비용은 지역적 세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을 따른다. 이러한 원칙대로 지방 재정을 운영할 경우 필연적으로 '지방 간 불균등 발전'이 심화될 수 있다. 현대의 국가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는 스미스가 주장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거나 충돌해야 할까?</b></p> <p>*영: 스미스 시대의 지방 자치 비용 부담 원칙은 혜택을 받는 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이상적인 결합이었다고 생각한다.</p> <p>하지만 이 원칙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가난한 지역은 계속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갇힌다. 가난한 지역은 기반 시설에 투자할 비용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인재나 자본이 유입될 기회가 사라져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선 사회적 안정과 정의의 문제이다. 만약 지역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인간다운 삶의 필수 요소를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차별적으로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반하는 '억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은 스미스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정의 유지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 기여로 충당되어야 마땅하다.</p> <p>*윤: 이 문제를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도덕적 감정과 연결하고 싶다.</p>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바탕에는 공감이가 깔려 있으며 우리가 부유해지는 목적 중 하나는 타인의 존중을 얻는 데 있다고 본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심리적 문제는 소외감과 자존감의 상실이다. 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본다. '지역 균형 발전'은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심리적 안전장치이다. 부유한 지역이 재분배를 통해 가난한 지역의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과 국민의 문명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도덕적 의무가 될 것이다.

\*히: 스미스의 재정 원칙 즉 공공 비용을 부담하는 네 가진 기준 중 형평성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미스가 지역적 비용을 지역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한 것은 그 비용이 특정 지역의 상업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지역 균형 발전 투자는 사회 전체의 '고정 자본'을 확충하는 성격을 띤다. 결국 조화 해결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단기적인 시혜가 아닌 장기적으로 국가의 고정 자본과 순수입을 증대시키는 투자로 인식하고 이익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부담을 달리하는 데 있다.

#### 활동 결과

애덤 스미스의 혜택 부담 원칙은 공공 비용 부담의 기본적인 형평성을 제공하지만 이 원칙을 고수할 경우 현대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역 사업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및 안정 유지 국가 자본의 효율성 극대화 등의 이유로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단순한 지역 혜택을 위한 비용이 아닌 공동체의 필수적인 고정 자본을 유지하고 확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정의 비용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 최종 종합: 우리는 어떤 일과 삶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프롤레아팀이 처음 세운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자본주의 시대 곧 사회로 나설 우리는 어떤 일과 삶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가.”

EBS 『자본주의』를 통해 우리는 소비 빛 마케팅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힘이었다. 건전한 소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결합된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 빛으로 유지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금융 이해력을 갖추되 경쟁과 과시를 거부할 수 있는 삶의 속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고도화된 마케팅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정과 제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소비자”가 되기보다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진 시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력을 상품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시간을 분할하여 잉여가치를 추출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월급 많이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표면적인 목표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노동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연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줄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 잉여가치를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사용가치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바꾸는 집단적 실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전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단순히 옹호하는 이론이 아니라 동시에 그 위험을 경고하는 이론이기도 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과 더불어 정의로운 법 공정한 사법제도 검약과 근면 같은 도덕적 태도 그리고 교육이라는 공공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분업과 AI 자동화가 인간을 정신적으로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 지역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다는 문제의식 역시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넘어서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세 가지 축을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의식 관계와 도시 구조 교육과 복지까지 관통하는 총체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좋은 직업”과 “괜찮은 소비”를 따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동시에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했다.

둘째,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도 완전히 무력한 존재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 사회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약받지만 그 조건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확인했다

셋째,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 즉 자기 삶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처음 질문 “자본주의 시대 곧 사회로 나설 우리는 어떤 일과 삶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소비와 노동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그 기준의 출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일을 선택할 때에는 연봉과 안정성만이 아니라 그 일이 만들어내는 관계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비를 할 때에는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존엄하게 만드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안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인간다움과 연대, 포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북클럽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다.

# 공공 비용 분담의 형평성

2025-2  
심비우스북클럽

